

YTN 社報

www.ytn.co.kr

• 발행인 : 배석규 • 편집 : 홍보림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 Tel : 02-398-8000 • 제보 : 02-398-8282 / 02-398-8585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2009년 10월 30일 제 82 호

배석규 사장 취임 인사말

가장 공정한 언론, 가장 우량한 기업, 화기가 넘치는 최고의 일터로 만들자!

사원 여러분 우선 지난 1년 이상 동안의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묵묵히 본분을 지키면서 회사 발전과 정상화를 이끌어 주신 여러분의 크나큰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과 사원들의 적극적인 도움 속에서 회사의 생존과 이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 하루속히 회사를 재도약의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YTN 가족과 주주, 그리고 이사회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각오임을 밝힙니다. 회사가 세워진 지 15년 만에 YTN 출신이 경영의 책임을 진 CEO 자리에 처음으로 올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YTN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비롯한 YTN 출신으로 CEO를 이어가면서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원 여러분, 많은 사원이 앞으로 제가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궁금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운영 지침 몇 가지를 간추려 전 사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안정화입니다. 조직이 안정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지난 1년여의 혼돈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직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강이 확립돼야 합니다.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의 기틀을 다져가는 기본도 회사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바탕 위에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강의 확립은 노사 모두 상식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법과 사규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 저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엄격한 기강확립을 전제로 노사가 상극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원칙을 공유한다면 조직의 안정을 견인하는 진정한 화합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YTN 조직원들이 역점을 두어야 할 두 번째 부분은 방송의 정상화입니다. 공정한 방송, 균형된 보도는 뉴스 채널의 생명입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명실상부한 방송의 정상화가 완성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험난합니다. YTN은 뉴스가 거의 전부인 회사입니다. 때문에 뉴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특별한 노력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게이트키퍼가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방송의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사원들은 사원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업무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신상필벌은 더욱 엄격히 적용될 것입니다.

▶ 2면에서 계속



회사는 10월 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배석규 대표이사 사장직무대행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배석규 사장은 10월 12일 오전, 취임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직의 안정화 ▶방송의 정상화 ▶경영의 도약 ▶미디어환경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 등을 회사 운영지침으로 밝혔다. 사진은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열린 실국장회의

“YTN, 케이블 방송 시청률 1위” 지상파와 나란히 방송 4사로 자리매김

채널별 1일 평균 시청시간 4위
뉴스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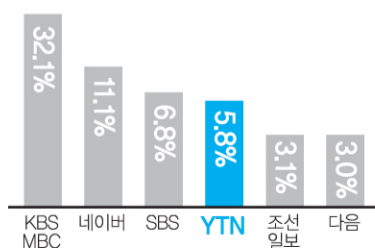
YTN이 케이블 방송채널 가운데 시청률이 가장 높고, 하루 평균 시청시간도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9월 한 달간 전국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미디어리서치' 결과를 보면 방송 채널별 개인 시청률은 케이블 방송 가운데 YTN이 가장 높고 OCN이 뒤를 이었다. 케이블 방송 가운데 채널별 하루 평균 시청시간도 YTN이 가장 길었다. 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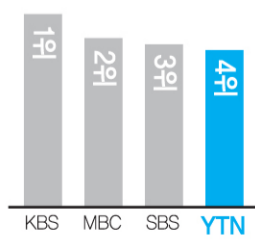
TV와 인터넷, 신문 가운데 KBS가 1위를 차지했고, YTN은 5위, 조선일보는 6위에 올랐다. 또 채널별 1일 평균 시청시간은 KBS, MBC, SBS, YTN의 순으로 조사됐다.

광고주협회는 이번 조사는 전 매체에 걸쳐 최초로 미디어별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79세 미만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0.9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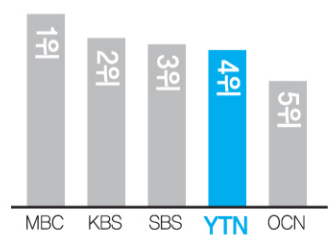
▶ 보도와 뉴스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



▶ 채널별 1일 평균 시청시간



▶ 채널별 개인 시청률



▶ 1면에 이어

책임회피나 무사안일, 집단의 위세에 기대는 기회주의적 행동은 모두가 경계해야 할 적폐입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편과 콘텐츠 보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고품질 뉴스상품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매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시작한 HD방송과 관련해서도 장비구입 시기 등을 앞당겨 HD방송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청권역을 확대하는 등 고품격 HD방송의 조기 정착에 매진할 것입니다.

셋째는 경영의 도약입니다. 회사는 지난 상반기까지 매출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대로 간다면 연말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영업외이익은 이 건물을 청산하면서 상당액수 생겼지만, 그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몫이고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부터 광고매출을 비롯한 영업 수지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IPTV 수신료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올해 어려운 경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회사의 역량을 총집결해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업부분에서 반드시 흑자경영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이 다소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4분기에 모든 힘을 쏟는다면, 연초 예상보다는 나은 경영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자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회사의 관리에도 사고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자회사들은 책임경영의 자세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특단의 자구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사는 대주주로서 그 방향을 논의하고 자회사가 본사의 서비스 채널로서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넷째로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입니다. 이미 태스크 포스를 발족시킨바 있습니다만, 미디어 빅뱅 속에서 단지 생존한다는 차원을 넘어 또 다른 도약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전략구상을 하나씩 가시화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특히 이른바 민영화로 일컬어지는 YTN의 지분구조 변경 시도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종편채널과 신규 보도채널 허가 등 새로운 미디어환경으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지켜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발매체라는 유리한 지위가 약화 되지 않도록 대내외적인 여건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인 노사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노조를 결코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노사관계는 모두의 아픔이고 불행입니다. 우선 노조가 경영의 주체가 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회사의 발전과 조직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노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상생의 매듭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회사도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 노조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출신 선배로서

YTN과 YTN 조직원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은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자세도 가지고 있다는 말을 강조해 드립니다. 노사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함께 상생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부터 어둡고 긴 터널을 어렵게 헤쳐 왔습니다. 이제 질곡과 대립, 갈등의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합니다. 안팎의 미디어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만 집착해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누구를,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이익과 생존 그리고 방송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회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잣대로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가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회사의 이익과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는 그 당사자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화합하고 희망이 충만한 미래를 디자인하면서 힘을 모아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YTN을 가장 공정한 언론, 가장 우량한 언론 기업, 그리고 화기가 넘치는 최고의 일터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대표이사 **배석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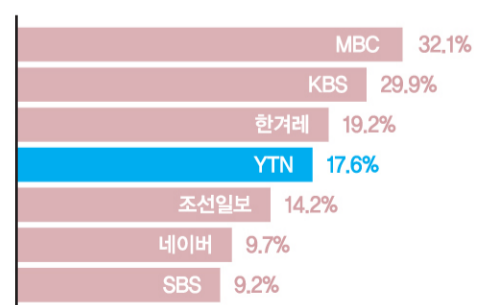
YTN, 신뢰도 4위

공정성 신뢰도 유용성 등 높은 점수

YTN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가운데 17.6%를 차지해 4위에 올랐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창간 100호 특집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다. 신뢰도 1위는 MBC 32.1%, 2위 KBS 29.9%, 3위는 한겨레가 19.2%를 기록했다. YTN 17.6%에 뒤를 이어 조선일보 14.2%, 네이버 9.7%, SBS 9.2%, 경향신문이 8.7%를 기록했다.

한편 YTN은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김정현 중앙대 교수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YTN은 지상파와 케이블 중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경제매거진 '포춘코리아'가 실시한 조사에서 케이블 채널 중 YTN의 경제 보도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조사 결과 YTN이 17개 신문 방송 온라인 매체 가운데 '가장 공정한 미디어' 부분에서 1위, 신뢰성 유용성도 2위를 기록해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2010 수능 총정리 - 사이언스 TV

수능 방송을 시작하다

요즘 사이언스TV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수능 방송'을 문의해 오는 예비 시청자의 전화이지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별도의 교재는 있나요?', '다시보기 서비스도 가능한가요?' 등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일반 업무가 마비(?)될 정도 이지요. 우선 기획이 너무 늦었지요. 세계 최강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수능 시장'에 방송 1개월을 남겨두고 프로그램 기획을 시작했으니까요. 수많은 수능 전문가들과 선생님, 전문 제작사 등을 취재한 결과, 이들의 반응은 이구동성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었습니다. 이미 EBS와 메가 스테디 등 경쟁한 콘텐츠가 있는 수능 시장에 1개월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충고' 였지요.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YTN 특유의 '깡'과 '추진력'으로 푹푹 뭉친 사이언스TV는 '그래? 안된다구?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사이언스TV는 낮·밤도 잇은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나요. '기적'이 생겼지요. 실제로 부딪쳐 본 수능 시장에서 'YTN', 이제 글자는 통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YTN이 한다면 돕지요'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마다 선·후배님들이 이뤄온 YTN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탄생한 프로그램이 <2010 수능 총정리>입니다. 사이언스TV의 수능 프로그램인 <2010 수능 총정리>는 8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0주 동안 방송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방영되는 수능 방송은 수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으로 나누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10시부터 11시까지는 수리 영역인 '수리 I'과 '수리 II'를 집중 편성하고, 두 번째 시간(11시~12시)에는 과학탐구 영역인 물리와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번갈아 방영할 계획입니다.

수능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수준 높은 강사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2010 수능 총정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교육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집단 중 하나인 '비상·에듀'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수리와 과학탐구 영역의 전문 강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동안의 노하우를 <2010 수능 총정리>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2010 수능 총정리>는 다시보기 서비스에서도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별도의 웹 페이지(www.ytnstudy.com)를 구축해 시청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했지요. 9월 17일이면 사이언스TV도 어느덧 개국 2주년을 맞이합니다. 개국부터 2년 연속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이언스TV에 <2010 수능 총정리>는 방송의 사회적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교육이 난무하고 어마어마한 교육비가 지출되는 한국 사회에서 사이언스TV의 수능 방송이 서민의 사교육비 절감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YTN의 차별화된 채널이자 한국의 대표 과학방송인 사이언스TV! 지금까지 그랬듯 저희 사이언스TV를 애정과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면 사이언스TV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김대공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신입 앵커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박지혜 85. 11. 4 동덕여대 일본어과
언제나 신중한 자세로, 정확하고 바른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매일 조금씩 채워 나가는 모습 지켜봐주세요.

하란정 84. 3. 22 연세대 임상병리학과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항상 2등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뉴스



YTN 손기정 평화 마라톤대회 MOU(10.27)



2009 임형주의 가을콘서트(10.17)



인천대교 개통기념 자전거 퍼레이드(10.18)



제 1회 청소년 영어토론대회(9.12)



사이언스TV 한국기록원 MOU 체결(8.27)

게시판

포 상 <특종상 은상> 김잔디 사회1부 : 건강한 40대 신종플루로 뇌사 보도 <특종상 동상> 하성준·전기호 차장대우 대구지국 : 영어마을 가짜 원어민 강사 채용 보도 / 이정미·신호·박조은 사회1부 김태운 차장대우 영상취재부 : 뇌물받은 경찰관 무더기 징계 보도 / 김현아 사회1부 : 현지 교장도 학원에서 강의 보도 <우수 프로그램상> 신용진 차장대우 경제부 녹색혁명, 마지막 선택(3부작) / 류충섭 차장대우 정치부 박관우 영상편집부 :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일대기 특집물 <사이언스TV 우수 프로그램상> ● 자체제작 : 김진두 차장대우 문화과학부 민형준 제작팀 : 나로호와 관련된 2편의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 외주제작 : 제3영상 : 리얼 입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공로상> 정명렬 기술연구소 실장 이은영 기술연구소 : HD방송시스템 자체개발 구축 수행 / 신현민 관제팀 : 자산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비용 절감 / 이인규 마케팅팀 : 중부권 영업소 광고매출 증대 기여 / 이상근 차장대우 마케팅2팀 : 신규 광고 개발 및 광고매출 증대 기여 / 이동렬 차장대우 사업2팀 : 제1회 청소년 영어 토론대회 협찬유치 등 공로 / 강민석 편성운영부 김영호 송출기술부 : HD주조정실 방송운영 안정화 노력 / 강성웅 차장대우 경제부 김학욱 차장대우 영상취재부 : '철도가 미래다' 기획시리즈 제작보도 / 손동렬 그래픽팀 : HD 자막방송 템플릿 제작 및 MCU개발 / 김대공 사이언스TV 편성기획팀 : [2010 수능 총정리] 프로그램 기획 / 박현찬 차장대우 제작기술부 김동후 차장 오민철 차장대우 인프라팀 : 제2스튜디오 HD세트 및 주, 부조정실 HD시스템 구축 <SO공로상> 이종원 티브로드 : 서울 지역 대부분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 프로그램의 기여 - '어르신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8/29) 보도 / 박인우 DBS 전남동부방송 :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 프로그램의 기여 - '낙양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9/5) 보도 / 송병철 HDN 부산방송 : 부산지역의 리포트제공을 통한 뉴스프로그램의 기여 - '부산 도심 산림 불법 경작 도 넘어' (9/18) 보도 / 유 슨 CJ헬로비전 경인방송 : CJ헬로비전은 전국을 MSO로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 프로그램의 기여 - '무형문화의 힘' (7/22) 보도 <표창상> 곽은정 홍보팀 : 견학 프로그램 진행 / 김진섭 사업2팀 : 제1회 청소년 영어 토론대회 진행 10.12자 <특종상 은상> 윤경민·김용래 정치부 : 북한,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 통보 관련보도 / 염혜원 사회1부 : 어린이집 수족구병 10명 집단 발병 보도 <특종상 동상> 이강진·김현아 사회1부, 이상영 영상취재팀 : 고교감독 대입 사례금 의혹, 끼워팔기 관행 보도 / 지대웅 부산지국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단독 화면 촬영보도 / 이승현 문화과학부 : 극장 광고상영 부당이익 논란 보도 <우수프로그램상> 이성모·최계영 영상기획팀 : 한국의 명산 <사이언스TV 우수프로그램상> ● 자체 제작 : 박인식 제작팀 : 한정호의 '인물탐구 - 문화예술계 특집' 대담프로그램 ● 외주 제작 : 남궁은 TV메카 : <그린오션 CO2 제로 작전> 체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공로상> 신동훈 기술연구소 : 데이터방송 통합시스템 구축 수행 / 최재일 구매팀 : HD방송 전환 장비구매 비용절감 / 하정완 마케팅팀 : 공기업, 공공기관 광고매출증대 / 김남식 마케팅3팀 : 신규광고개발 및 매출기여 / 김솔희 매체협력팀 : '09년 SO 프로그램 사용자 확대 등 수익 증대 / 정동균 편성운영팀 : 장애인자막방송 시행 및 제작지원금 수령 / 부산지국·대구지국 :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및 서거 관련 보도 / 김경아 뉴스3팀, 권준기 뉴스2팀, 김진두 문화과학부, 윤 미 그래픽팀, 최상섭·유근민 제작기술팀 : 북한 2차 핵실험 뉴스특보 방송 / 이기주 제작기술팀 : 홍보용 앵커, 기자 사진촬영으로 비용절감 / 이영재·김재탁·전재성·이승환 제작기술팀 : 1.2부조 조명개선, 앵커팀 이동 및 세트 작업 / 권혁근·한철욱 중계팀 : 시경 교통정보중계망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 / 정해봉 장비관리팀 : 동영상 파일 통합 컨버팅 시스템 구축 <SO공로상> 오용석 C&M케이블 : 서울 지역 대부분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 프로그램의 기여 - 등록금 무이자 대출 조례 제정 추진(6/11) 보도 / 구주임 헬로TV서울 : 서울 양천, 은평지역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 프로그램의 기여 - '무료급식 전자카드 불만' (4/9) 보도 / 박상호 SCS서경방송 : 진주, 사천, 남해 등 경남지역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 프로그램의 기여 - 시장 '배달도우미' 등장 인기(6/7) 보도 / 김영훈 CMB광주방송 : 광주 전역과 전남 중부권 지역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 프로그램의 기여 - 광주 '자사고·외고' 논란 가열(6/10) 보도, 7.10자

승진 <국장> 김백 경영기획실장, 홍성표 마케팅국장, 황성수 사이언스TV본부장 <국장대우> 이계성 인프라팀장 <부국장> 홍영기 춘천지국장, 이정우 대전지국장, 유석현 앵커팀장, 최수호 YTN라디오 파견 <부국장대우> 이병균 충무국장, 김익진 취재담당부국장, 문중선 편집담당부국장, 홍문표 영상담당부국장, 김재동 심의실, 박성호 워싱턴지국장, 황명수 YTNDMB 파견, 오수학 YTN라디오 파견 <부장> 채문석 기획총괄팀장, 천상규 총무팀장, 설명수 마케팅2팀장, 김원배 편성운영팀장, 김강하 경제부장, 김형근 사회1부장, 임종열 사회2부장, 채장수 대구지국장, 유종민 제주지국장, 이재운 문화과학부장, 이양현 스포츠부장, 김호성 국제부장, 송경철 해외방송팀장, 강홍식 뉴스1팀장, 이동현 뉴스2팀장, 조성룡 보도제작팀장, 이성호 송출기술팀장, 김중술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장, 이귀영 YTN라디오 파견 <부장대우> 염해진 감사팀장, 권오진 홍보팀장, 한상규 사업1팀, 김해중 사업2팀장, 김인철 부산지국, 김동우 청주지국, 박상남 뉴스5팀장, 이화웅 영상편집팀장, 김태동 기술기획팀, 김명철 송출기술팀, 신광호 사이언스TV본부 방송지원팀장 <차장> 손재호 부산지국장, 민병호 홍보팀, 김환명 인사팀, 전병곤 마케팅기획팀장, 최성호 매체협력팀, 원경태 보도국, 김주환·왕선택·이동우 정치부, 정성영·최재민·경제부, 이광엽 사회1부, 박태근 대구지국, 정두운 제주지국, 유희식 청주지국, 진민호 춘천지국, 도경희·박동일 대전지국, 이종수 뉴욕지국장, 임수근 뉴스3팀, 이준호 그래픽팀장, 김대경·김영옥·원영빈·이문세 영상취재팀, 김동후 인프라팀, 최병관 제작기술팀, 이광희·최광락 중계팀, 김형욱 장비관리팀, 기정훈·박철원 YTNDMB 파견, 8.1자

운동 마니아들이 모였다

정 넘치고 인심 좋은 전주지국

안녕하세요. 전주지국의 소개를 맡은 막내 최지환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선/후배분도 계실 것 같아 짧은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5년(아마 이 해부터 우리 YTN이 흑자를 기록해 연말 상여금이 지급된 해로 기억합니다. 저희 9기들이 복덩이 일까요? ^^) 1월 YTN 공채 9기 촬영기자로 입사했습니다. 아마도 자막으로 이름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 서울에서 선배들을 만나면 “지환아 요즘 일하니? 자막으로 니 이름을 통 볼 수 없다”고 농담(?)을 가끔 하시지만 나름 전라북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작지만 강하고 부지런한 전주지국 소속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 넘치고 인심 좋은 전주지국을 소개합니다. 얼썬~?(판소리 투입새)

전주지국 환경

전통문화와 맛과 멋의 고장인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주지국은 창밖으로 전주 유일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과 전주의 핏줄인 전주천이 한눈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쇼핑과 산책이 가능한 곳입니다.(무슨 아파트 광고 같습니다.) 전주에 출장이나 휴가로 내려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기 좋고 물 맑고 거기에 정도 많고 인심도 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통문화의 도시,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를 대표하는것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우선 전통한옥과 판소리, 한정식, 비빔밥 그리고 최근에 인기 급상승 중인 전주막걸리 그리고 전주 사람들의 여유있고 정감있는 사투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주를 방문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맛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막걸리를 마시다보면 결코 밤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지국 특파원들 멤버소개

취재부서는 잦은 통화나 출장을 통해서 지국 사원들의 얼굴 또는 이름은 아시겠지만 얼핏 아시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지면을 빌어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우선 전주지국의 대표 꽃미남(?)이자 마음은 아직도 이팔청춘인 전주지국장 **홍수기** 선배. 두 번째로 책을 손에서 놓지않는 지국 최초 박사 학위를 소유한 **조영권** 선배. 세 번째로 지국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발차기(가끔 회식을 하고 나오면 아직도 쭈다는 것을 발차기로 증명한다는), 시험과 자격증 취득의 달인 **여승구** 선배. 네 번째로 주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직도 여자보단 주식을 더 좋아하고 있는 **운전 베테랑인 노충각(?) 김상규** 형님. 다섯 번째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전주지국의 막강 젊은 에너지인 **최지훈** 오디오맨. 마지막으로 전주지국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전주지국 살림꾼 **최지환**. 총 정에 요원 6명이 전라북도 전체를 가끔은 타 지역까지(가끔 인근 출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각자 개성도 강하지만 일 할 때만큼은 하나가 되어 역량을 발휘합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이건 분명 팩트입니다.

전주지국 특파원들은 운동 마니아

언제부턴가 전주지국에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자’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점점 거세져 골프에 서부터 수영, 헬스, 배드민턴, 권투, 야구 그리고 걷기운동에 이르기까지 점점 다양한 스포츠맨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늦게(2~3년 전부터) 골프를 시작하신 **홍수기** 선배는 타이거 우즈를 꿈꾸며 새벽에 골프 연습장을 들러서 출근을 합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우즈처럼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골프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권** 선배는 누적되는 스트레스와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합니다. 고 조오련 선수(별명이 물개였죠.)를 꿈꾸며 퇴근 후 한 시간씩 돌고래로 변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코리아**를 꿈꾸는 **여승구** 선배. 잦은 허리 통증으로 시작한 헬스가 이제는 가수 비의 몸매에 버금가는 몸을 만들었습니다. 닭고기 가슴살과 바나나와 우유를 시간마다 보충하면서 체중도 6~7kg 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느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김상규** 형님은 걷기 마니아입니다.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건강까지 좋아진다고 매일 출근길을 도보로 합니다.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말이죠. 그리고 지국 막내 오디오맨 **최지훈**은 헬스, 야구, 배드민턴, 러닝까지 아직 젊은 체력을 과시하면서 스포츠를 즐깁니다. 아직 적성에 맞는 운동을 못 찾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 마지막으로 저는 권투와 배드민턴에 푹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시작한 권투와 배드민턴. 이제는 아마복싱 선수와 배드민턴 생활체육대회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국 올림픽이 있다면 전주지국이 따놓은 당상이지 않을까 합니다.

상식과 소통이 통하는 전주지국

‘전주지국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상식과 소통’이었습니다. 어떤 수직적인 조직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을 하고 서로 각자 맡은 바 임무에는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유롭지만 책임감 있는 분위기. 한편으론 언론사라는 곳이 수직적인 조직체계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지만 전주지국 만큼은 수평적인 조직구조로 개인의 의견을 쉽게 표현하고 각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여섯 명이 뭉쳐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취재 아이템이 정해지면 **홍수기** 선배나 **조영권** 선배는 촬영기자 뿐만 아니라 오디오맨, 운전 형님에게까지 아이템의 내용이나 이동거리 등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나 돌발상황에 대한 사소한 것들까지 서로 부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취재 현장에 나가 있으면 뒤가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여승구, 김상규, 최지훈, 홍수기 지국장, 조영권, 최지환.

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하기에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파원들의 자유 발언

홍수기 지국장 취재나 촬영, 운전, 촬영보조 등 고유한 보도 업무는 각자 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별 다른 당부는 없고 비보도 업무도 충실했으면 하네. 예를 들면 퇴근 인사하면서 그냥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벤트는 막걸리입니다” 한다면서 나를 꼬이거나 “홍선배! 오늘은 이벤트 없어요?” 강요하든지 말িয়ে. 나 혼자 이벤트하게 하지 말고....

조영권 차장 아직도 장가 못 간 보선이, 근배, 치훈, 종완아! 아침 저녁으로 니들이 고생이 많다~~ 받아라!! 손다!! 씨언한 전주막걸리! 빼드러지게 먹고 사고 쳐서, 국수로 돌리도!!

여승구 차장 전주지국에 한번쯤은 오셨던 분, 전주지국에 아직도 못오신 분행한 분? 전주지국은 누구든 편애하지 않습니다. YTN이라는 이름아래 발을 담그고 계신 모든분을 환영합니다. 전주에 오시면 지국에 한번 들려 주실거죠? YTN 파이팅!! 전주지국 파이팅!!

김상규 형님 (취재차 운전) 지국에 계신 운전하는 형님 동생님들 출장이나 가야 얼굴 한번 봤는데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군요. 조그만 참으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고 그 날까지 모두들 파이팅!!! 오케이~??? ㅋㅋ

최지훈 오디오맨 YTN 선배들을 만나서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아직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많이 배우겠습니다.

최지환 기자 몇 달 전부터 사보에 부산, 제주, 광주 순으로 지국소식이 전하고 있어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각 지국마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부산은 사진에서 느낄 수 있는 화기애애함, 제주는 평화로운 분위기, 광주는 광주민주화 항쟁의 현장다운(?) 끈끈함..그렇다면 전주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를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지국 속의 인물이었고 지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가벼울지 모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전주지국의 분위기나 지국 사람들의 모습을 몰랐던 분들께 사보를 읽으면서 전주지국을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지환 전주지국

퇴임하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두루두루 감사했습니다

정년(停年)! 무엇을 써야 할지 한참 망설였다.

기자 32년! 14년을 대한민국 최초의 보도채널에서 끌어 땀이 영광스럽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다.

YTN에서 14년. 지국을 개설할 때 언 손을 녹여가며 개미가 역사하듯 지국을 개설할 일, IMF때 좋은 날 있을 거라며 서로를 부둥켜안고 도시락을 까먹던 일, 조명장비가 여의치 않아 손전등으로 밤을 밝히며 수해현장을 누빈 일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2004년 3월 전대미문의 폭설로 정부와 중부 고속도로가 마비된 사태를 첫 방송하고 대책 등을 집중 방송해 YTN의 위상을 높인 일 등은 참으로 자랑스럽다.

없었으면 좋을 가슴 아픈 일도 있다. KBS후배로 무조건 선배 따라 간다며 따라왔던 대전 이광옥 지국장의 죽음은 지금도 송곳으로 가슴을 저미는 것처럼 아프다. 또 회사가 어려울 때 지역 선후배들과 기업을 찾아다니며 1년에 29건의 광고를 유치한 일들은 지금 생각하면 열정이었다.

이제 가야한다!

사랑하는 친정 YTN 식구를 두고 가야한다. 출가외인 격이지만 친정이 잘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경영진들에게 사람을 아껴달라고 말하고 싶다. 사규를 내세워 많은 인재를 칼질 하는 것 같다. 법이나 사규는 구속의 의미보다는 보호의 의미가 크다. >지국을 강건



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지국은 서울의 들러리가 아니다. HD 카메라도 지국부터 지급 했어야 했다.(이제 지국은 타 방송사와 방송 자료를 주고받는 호환이 안 된다) >서울과 지방의 마케팅 실적 상대비교는 곤란하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모두 몸으로 부딪혀 저인망식으로 따오는 광고다.) >사장이나 간부들이 지방을 빈집 다녀가는 것처럼 순시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지국 직원들이 상처를 입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후배들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 나홀로 장군은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YTN을 위해 좋은 일이다.

비단 이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이쯤해 두자. 그저 그저 친정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었다. 이글로 혹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맞는 일이 있다면 고쳐 감사다. 그것이 우리 YTN을 위해 서로 좋은 일 아니겠소. YTN 친정식구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나길 청주 촌놈이 기도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방송 현장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루두루 감사했습니다.

2009년 8월 31일 김태훈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나로호 희망을 쏘다!

3번의 연기, 그리고 발사.

이제 YTN 16년째, 이리저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나로호 만큼 나를 힘들게 한 이슈는 없었다.

우선 기간, 발사를 한다고 했으면 바로 쏠 것이지 왜 이리 연기가 많은 지...

첫 발사일은 7월30일,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로켓 실험에 문제가 생겨 한 차례 연기됐다. 이어 날짜가 8월 11일로 잡혔다. 잘 마무리 되면 아이 방학이 끝나기 전에 가족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마저도 하사, 발사는 또 연기됐다. 러시아에서의 문제가 모두 해결돼 8월 19일로 발사 일자가 확정됐다. 발사 사흘 전부터 중계팀, 취재진 2팀을 구성해 땅 끝, 전남 고흥의 외나로도로 향했다. 발사 이틀 전 나로호가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향하고 발사 하루 전 최종 리허설까지 잘 마무리됐다.

드디어 발사일, 오전 9시부터 실제 발사 운용이 시작되고 중계차와 프레스 센터를 오가며 발사의 순간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발사 자동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나로호는 발사 7분56초를 남기고 또다시 발사가 중지됐다.

발사 예비일 가운데 하나인 25일에 이뤄진 2번째 발사. 이번에는 7분56초를 쉽게 넘기더니 최종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고 드디어 나로호는 굉음과 함께 우주로 향했다.

물론 발사가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발사를 지켜보던 국민 대다수가 가슴으로 느꼈듯이 나도 우리가

왜 우주로 가야 하는 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프레스 센터 TV, YTN으로 고정되다!

우리 취재진은 중계와 취재 인력, 운전기사들을 합해도 21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K, M, S 지상파는 모두 40여 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파견돼 우리 스튜디오의 2배에 달하는 야외 스튜디오를 짓고 방송에 임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YTN은 어려운 상황에서 빛났다. 나로호 1차 발사 연기가 된 다음 날인 20일 아침, 발 빠른 취재로 연속 2개의 긴급속보가 YTN을 통해 방송됐다.

'나로호 발사 중지 원인 경미', '재발사 26일 이전 이뤄질 듯' 연이은 속보로 프레스 센터는 난리가 났다. 지상파 뿐 아니라 신문사들도 서울에서 전화를 받고 직접 확인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프레스 센터에 있는 4대의 TV 가운데 2~3대는 항상 YTN으로 고정돼 버렸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21명의 선후배가 땀땀 뭉쳐 이뤄 낸 나로호 발사.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5월 재발사 때는 YTN의 뛰어난 취재력과 속보 기능, 그리고 이번에는 부족했던 기획 능력까지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김진두 차장대우 문화과학부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

과학을 즐기자!

해마다 과학계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다. 4월 과학의 날 행사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과학축전이다. 2008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의 첫 참가 후 올해 두 번째로 참가한 YTN사이언스TV는 방송채널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나름 독특한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과학축전 총 관람객 약 20만 명. 2009년 대한민국과학축전에 참가한 YTN 사이언스TV의 성적표는 부스 스튜디오 내 사진촬영 및 앵커, 기자체험전을 포함한 약3000명(하루 평균 약 500명)이 방문을 했고 물품으로 협찬 받은 과학매거진 '과학소년' 2,000부가 부스 방문자들에게 무료 배부됐다.

과학과 파티, 그리고 오아시스

지난 8월4일부터 6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과학축전은 사막 위의 오아시스처럼 과학에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해 주었던 시간이었다. 이론 속의 과학을 현실 속에서 만나 보았다고 할까? 첨단 기술, 과학 실험, 문화 체험, 그리고 미래로의 상상까지 과학축전은 어렵기만 했던 과학을 한 걸음 더 쉽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과학

대한민국과학축전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녹색의 기술들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21세기 프린터 연구개발사업단, 그리고 기업과 대학 등 48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이 외치는 것은 위기와 가능성이다. 지구와 인류가 처해있는 위기현황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과학기술개발에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에너지를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레일 위를 떠다니는 초전도 자기부상열차 탑승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녹색의 힘,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기술로 에너지수출국가로서의 발판을 다지고 있음을 과학축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축제 속에서 과학자를 꿈꾸다!

지난 1997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13번째 열린 대한민국과학축전. 13년 전 이곳을 갔다 온 학생 중 이미 과학자가 된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나이는 가지각색이었지만 축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표정은 진지했다. 게다가 국내의 50개 단체에서 마련한 흥미진진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서 과학의 맛 중 재미와 호기심을 끌어내기 충분했다. 떡개비라고 기억하는가? 벽에 던지면 철썩 소리와 함께 몽개졌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컹거리는 물질. 정식명칭이 플러버라고 하는 그 장난감을 직접 만든 기억은 손에서 느껴진 감촉만큼 잊히지 않을 듯하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의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과학 실험들. 아마 미래의 대한민국 과학계를 이끌 씨앗은 분명히 과학축전이 촉매제가 되어 가슴 속에 싹이 트었을 것이다.

과학축전 속의 YTN 그리고 사이언스TV

국내 유일의 과학전문 채널 사이언스TV도 과학축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다. 콘텐츠별로 정보와 재미를 얻을 수 있는 <YTN 스페셜>, <한정호의 인물탐구>, <보물섬>, <토마토>, <과학향기> 등 재미있고 다양한 과학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미디어그룹으로서의 YTN 뉴스와 YTN DMB, YTN FM까지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소중한 장이 됐다. 방송 체험전을 통해 많은 관람객은 뜨거운 조명과 낯선 카메라 앞에 앉아 미래의 아나운서, 기자를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큐' 사인에 맞춰 참가자들은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한줄한줄 기사를 읽어 내려간다. YTN 로고 송을 부르는 꼬마, 학교방송반의 명예를 걸고 참여한 학생, 방학을 맞아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참가자까지....YTN은 좀 더 가깝게 국민에게 다가서게 됐다.

과학 선진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과학축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갈 첨단기술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과 엄마 손을 잡고 온 꼬마들의 눈동자 속에서 과학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 미래의 과학자들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2009년 여름의 한가운데...8월의 무더위도 6일 동안 행사장을 가득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의 열기보다는 약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과학축전과 같은 행사가 대중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과학, 문화의 장으로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YTN사이언스TV도 좀 더 친숙하고 쉬운 대한민국 유일의 과학 전문채널로서 자리매김 하길 기원해본다.

박진언 차장대우
사이언스TV 편성기획팀



DMB, 그 두 번째 이야기

DMB 2.0, 방통융합 서비스의 보편화를 선언하다

되짚어 보면, 내가 IT 분야와 연을 맺게 된 계기는 원고지였다. 복학생 신분이던 1989년 나는 모 단체에서 정기간행물 만드는 일을 하느라, 매일 같이 원고지와 씨름하는 일과를 보내곤 했었다. 원고 하나를 마치고 나면, 주변엔 구겨진 원고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는데, 원고지 값을 아끼려 동네 경인쇄소에서 400자 갱지 원고지를 대량 인쇄해서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그 싸구려 원고지가 내 인생을 바꿀 줄이야. 당시 공대 대학원생이던 형님이 의자 뒤에 던져진 원고지 더미를 보고 소개해 준 것이, 그야말로 출시 몇 일 되지 않은 - 딱딱한 '한글 1.0' 이었다. 당시 형님의 XT-우리 집 세 번째 PC-를 외면하고, 타자기나 워드 전용기 구매를 모색하던 내게, XT에서 디스켓 두 장으로 돌아가는 '한글'은 말 그대로 경이 그 자체였고, 난 결국 몇 달 후 AT라는 놈을 내 책상에 올려놓고야 말았다.

초보자에게 PC용어들은 온통 생소할 뿐이었지만, 특히 독특했던 게 바로 버전[version]이란 것이었다. 한 제품의 업그레이드(기능 개선)상품에 붙이는 1.0이니 2.0 하는 버전은, 기존의 '브리태니커 1985년판' 식의 표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정수 부분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소수점 이하 부분은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뜻하는 표기 방식이 좀 더 과학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각설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DMB의 새로운 버전이다. 그것도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 업그레이드, 즉 DMB의 환골탈태한 버전으로 그 이름은 DMB 2.0이다. (사실 2.0이란 명칭은 확정명이 아니라 아직 가칭이지만, 2.0이 의미하는 DMB의 메이저 업그레이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굳이 새 이름이 필요하겠느냐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혹자는 그냥 데이터방송 서비스 하나 추가하면서 너무 거창한 포장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음을 들여다 보자는 것이다.

1. 벽을 허물다.

지금까지의 DMB를 1.0이라 부른다면, 1.0 시절 우린 TV를 들고 다니며 보는 것에 감격했다. 자동차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디지털 화면에 즐거워했다. 방송 시간 맞춰 귀가하는 대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카페에서 DMB TV를 통해 뉴스와 드라마, 스포츠를 맘껏 시청할 수 있었다. DMB라디오를 통해선 방송 중인 프로명과 곡목은 물론, DJ의 패션까지 눈으로 확인하며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 DMB데이터방송을 통해 운전자가 막히지 않는 길을 빠르게 찾아가는 것은 물론, 기름 값이 가장 싼 주유소까지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꿈 속에서나 가능했던 것들이 현실화됐고 보편화됐지만, 우린 이제 이것을 1.0이라 부르려 한다.

2.0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2.0의 기본 콘셉트는 TV, 라디오와 데이터방송 사이의 벽을 없애는 것이다. TV는 TV, 라디오는 라디오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TV가 포털 서비스와 만나고, 라디오가 벨소리 다운로드와 함께 할 뿐 아니라, TV를 보며 게시판 댓글을 달고, 방송을 시청하면서 퀴즈 응모나 설문조사 응답을 하는 프로그램 참여까지 하나의 단말기 속에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화면에 여러 창을 띄워 작업하는 - 윈도우로 대변되는

멀티태스킹의 시대가 미디어 시장에도 열리는 것이다.

매체간 벽 허물기가 세계적인 미디어 트렌드라는 걸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청자들은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켜 놓고, TV에 첫 출연한 실력과 신인 가수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미디어 융합은 기술과 제도를 뛰어넘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그런 소비자의 일상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DMB 2.0은 그것을 지향한다. 기술은 고객을 유혹하려 하지만, 결국 기술은 고객의 선택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2. 따로 또 같이

DMB 2.0이 기존 매체들의 데이터방송과 어떻게 다를까? 가장 큰 특징은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다. 일본의 이동방송 원세그처럼 DMB 2.0에선 TV(또는 라디오) 화면과 데이터 화면이 병존한다. 디지털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서처럼 부가 정보가 TV 화면을 가리지도 않는다. 작은 화면이지만, 시청과 접속이 동시에 이뤄진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저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들여다 보는 풍속도를 DMB 1.0이 만들었다면, 2.0은 TV를 보면서 궁금한 것을 바로 찾아보고, 시청소감도 바로 올리는 적극적인 DMB시청자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TV와 데이터가 함께 하면 편리해진다. TV가 드라마를 방송할 때, 데이터는 그 드라마의 출연진을 소개한다. 혹 지난 회를 못 본 사람들에게 지난 줄거리는 물론 VOD도 손쉽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부조에서 삼입하는 자막 정보 대신, 시청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선택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송 참여도 시청과 동시에 즉석에서 이뤄진다. 기자의 리포트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시청자 댓글이 쇄도할 수도 있다.

물론 TV와 데이터가 따로 가도 문제 없다.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갑자기 주가지수가 궁금해져도, 화면을 닫지 않고 찾아볼 수 있다. 데이터 화면은 특히 방송과 통신이

언제고 자유로이 넘나드는 형태로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TV와 데이터, 방송과 통신이 그때그때 '따로 또 같이' 시청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물론 과도한 통신 요금의 우려를 불식시킬 저렴한 정액제도 확실히 되고 있다.

YTN DMB를 비롯한 지상파 DMB 방송사들은 지난 8월 DMB 2.0의 시험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곧 시제품을 거쳐 연말쯤 첫 번째 DMB 2.0 지원단말기가 선보일 것이다. SK텔레콤만 해도 4백만대의 2.0 단말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터라, 보편화는 말 그대로 시간문제다. 휴대폰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잠시 미루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원고지로 시작됐던 나의 IT세상과, 내가 IT기자였기에 받을 담그게 된 DMB세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빠르고 꾸준히 발전한다는 점이다. 물론 소프트웨어라고 모든 제품이 2.0 버전을 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베타버전(출시 전 테스트를 위해 공개하는 버전)에서 중단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1.0을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어떤 것은 꾸준히 발전한다. 내 인생 가장 처음 접했던 PC소프트웨어 '한글'은 지난 20년 동안 10여 차례나 업그레이드됐고, 여전히 내가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의 하나다. 그리고 보면, 지상파 DMB도 2005년 12월 첫 방송이 1.0였다면, TPEG 시작에 1.5를, 유가 정보 제공에 1.6 정도의 이름을 줄 수도 있겠다. 계속 발전해 왔다는 얘기가.

이제 속제는 2.0의 성공이다. 여기엔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적 방통융합 서비스 DMB 2.0은 TV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고, 기자들의 리포트 작성 단계에서부터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융합'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될 때, 3.0, 4.0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DMB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미디어 대변혁의 시대에 YTN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기정훈 YTN DMB 데이터서비스팀장





뉴스와 음악이 만나다!

주말 오전, 전진영 아나운서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세요!

그녀, 진짜 YTN 가족이 되다.

벌써 YTN에 입사한지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2008년 4월 30일, 화창한 봄날, 떨리는 마음으로 개국 특집 방송을 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YTN FM 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ID 카드를 목에 걸고 출근하는 것도, 선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내 목소리가 YTN 라디오를 통해 매일 나온다는 것도... 하지만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YTN 건물이 마치 집처럼 편안해진 지금, 저는 '아! 이제 진짜 YTN의 가족이 됐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녀, YTN에 입성(?)하기까지...

저는 YTN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 첫 방송, 바로 YTN에서 시작했거든요. 2005년 가을, 대학교 4학년 때 YTN '뉴스의 현장'에 포털 사이트 야후 코리아와 함께 만드는 '네티즌 광장' 코너가 있었는데, 그 코너를 진행하는 프리랜서 MC 오디션에 합격해 7개월 동안 '네티즌 광장'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합격한 남자 MC가 바로 지금 저와 YTN FM 동기인 박형주 아나운서입니다. 박 아나운서와 저는 그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YTN과 질긴 인연이긴 한가보다' 라고 한답니다. 입사 뒤에도 그 때를 기억해주는 선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해인 2006년에는 춘천MBC 뉴스 앵커로 합격을 하면서 네티즌 광장을 떠나게 됐지만, 그 때의 기억과 경험은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춘천MBC에서 뉴스 앵커로 일한 2년 동안은 그 밑거름을 바탕으로 새롭게 싹을 틔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보도국 소속 뉴스 앵커로 입사했기에 기자 선배들을 따라 취재 현장도 다니고, 직접 리포팅도 해보고, 기사 작성과 취재, 시사프로그램 제작까지 해보면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익혔습니다. 뭐든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일단 생기면 '저 시켜주세요!' 라고 했던 그 때 경험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소중한 자산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009년 3월, 저는 YTN 라디오 개국 공신으로, 다시 YTN에 돌아왔습니다.

그녀, 음악 프로그램 DJ에 도전하다.

주말 음악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YTN 라디오의 에이스(?) PD 박용호 선배의 제의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음악프로그램 DJ를 해보는구나... 하는 설렘과 함께 처음 해보는 방송 분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말입니다.

YTN에 입사하면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은 절대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에 그리던 DJ를 하게 된다는 건,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DJ를 하게 되니,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습니다. 작가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원고를 제가 직접 써야했기 때문이죠. 프로그램 오프닝에서부터 음악 사이사이에 이어지는 멘트들, 그리고 코너 구성까지... 새삼 라디오 작가라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이라는 이름 아래 과연 음악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도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단순히 웃고 떠드는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뉴스와 어울리는 코너들을 만들고, 또 어울리는 음악들을 선곡하는 일까지... 아마 저희 담당 PD인 박용호 선배의 도움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모든 채널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단순히 흘러 듣는 게 아니라 꼼꼼히 모니터를 하게 된 지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뿌듯하고, 또 즐겁습니다.

주말 오전, 그녀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제가 진행하는 '전진영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은 주말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방송되는데요, 중간 중간 10분 뉴스들과 정오종합뉴스들을 빼면, 사실 방송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는 알찬 코너들과 음악들이 가득합니다.^^*

토요일 1부에는 '주간 핫 클릭' 뉴스라는 코너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한 주 동안 YTN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들을 뽑아서 쉽게 설명하고 있고, 2부는 '선곡을 부탁해'라는 코너를 통해서 YTN에서 방송하고 있는 앵커,

아나운서, MC들에게 직접 선곡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곡한 이유나 그 음악에 얽힌 추억들까지 함께 전해 드리는데요, 제가 언제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 선곡을 부탁할지 모르니, 다들 긴장하시길^^

일요일 1부는 '뮤직 올드앤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원곡과 리메이크 곡을 비교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원곡에 익숙한 장년층과 리메이크곡에 익숙한 청년층이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2부에 마련된 '마음을 읽다' 코너에서는 제가 읽는 책이나 인터넷 블로그, 카페에서 발췌한 좋은 글들을 잔잔한 음악과 함께 낭독해 드리는데요, 좋은 글을 마음에 되새겨 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3부를 장식하고 있는 '김호성 기자의 지구촌 스케치' 코너. 한 주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처 뉴스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해외 동포들의 소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그에 어울리는 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해외방송팀의 김호성 팀장님께서 특유의 입담과 재치, 그리고 센스 있는 팝 선곡으로 재미있게 코너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팝에 대해서 워낙 해박하셔서, 저도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한지 겨우 3개월, 아직까지도 저는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새롭고, 매번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초짜 DJ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시도 되지 않았던 뉴스와 음악이 공존하는 우리 YTN FM의 뉴스 & 뮤직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은 남다르답니다. 주말 오전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전진영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을 듣기 위해 라디오를 켜게 되고, 또 제 목소리를 기다리는 청취자들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저는 부지런히 음악여행을 준비합니다. 자~ 주말에 더 이상 늦잠자지 마시구요! 저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 94.5 고정!! ^^*

전진영 아나운서 YTN라디오